

‘벽안의 할매천사’들 소록도 43년과 그 후

성기영 작가 ‘소록도의 마리아나와 마가렛’ 출간



성기영 작가

“마가렛 할머니는 시종 웃는 낮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모든 기록물을 정말로 싫어하는 데도, 먼 곳에서 온 손님인 내게 보이는 할머니의 웃음은 그저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서툴게 들리기도 하지만 꽤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했고 재치 있는 농담도 잘 하셨습니다.”

‘소록도 할매천사’ 마리아나(83)와 마가렛(82)은 40여 년의 시간을 소록도에서 헌신한 이방의 간호사들이었다. 오늘날의 소록도가 있기까지 두 사람의 희생과 헌신은 절대적이었다.

최근 이들의 삶과 이야기를 다룬 ‘소록도의 마리아나와 마가렛’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우리 곁에 사랑이 머물던 시간’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위해 봉사의 삶을 살았던 두 간호사의 43년과 그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영화 ‘가족의 탄생’(2006)으로 대중상 시나리오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성기영 작가.

그녀는 “두 분이 선정을 드러내는 걸 결코 원치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이들과 크나큰 희생을 공유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특히 두 ‘할매천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마리아나와 마가렛’이 4월 개봉을 앞둔 터라, 책 발간은 두 분의 일생에 대한 기록을 넘어 ‘소록도’로 대변되는 우리네 삶의 역사를 반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 작가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지난 2015년 8월 전주교 광주대학교와 소록도 성당으로부터 의뢰를 받고서였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살아온 마리아나와 마가렛 할머니를 인터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렵고도 조심스러웠다. 당초 책은 소록도 개원 100주년이 되는 2016년 발간을 목표로 의뢰를 받고서였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살아온 마리아나와 마가렛 할머니를 인터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렵고도 조심스러웠다. 당초 책은 소록도 개원 100주년이 되는 2016년 발간을 목표로 의뢰를 받고서였다.

작년 100주년 기념식 때 소록도에 와서도 두 할머니는 빗발치는 인터뷰 요청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가졌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의 심자기를 지탱하듯 살아온 이들의 아름다운 삶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은 당위를 넘어 사명감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취재가 시작됐다. 2016년 저자는 다큐멘터리 영화팀과 두 분이 거주하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를 방문했다. 두 분 모두 평생 독신으로 지냈기에 당연히 자녀는 없고 형제들이 있었다(현재 가족들 취재는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당시 마리아나는 전식과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마가렛은 요양원에 있었다. 성 작가는 마리아나의 얼굴에서 “알프스 산 위의 하늘색을 담은 그분의 푸른 눈은 참으로 맑고 깨끗했다. 그 연세의 노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마가렛이 거거하는 작은 방에는 “한자로 ‘無(무)’, ‘無心(무심)’, ‘愛德(애덕)’ 등의 글귀가 쓰인 흰 종이가 붙어 있었고, 작은 제단 위에는 소록도의 사슴뿔도 놓여 있었다”고 기억했다.

“대답할 말이 없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환자들처럼 같이 살면서 소록도 아주 좋았고, 간호사로서 병원 일 기쁘게 했고, 우리 진짜 행복했어요. 모두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마리아나)

“소록도? 아주 좋았어요. 근디 부끄러워, 나는 간호 일까지 그거 말고는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 행복 있었어요. 환자



오스트리아 고향 마을서 만난 마리아나씨(왼쪽)와 마가렛씨. <김재욱 제공>

들 치료해주는 거 같이 사는 거, 다 좋았고, 근디 그 시절, 이제는 다 지나갔어.”(마가렛) 그렇게 오스트리아 현지 취재와 10여 차례 넘는 소록도 방문이 이어졌다. 그리고 2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책이 완결됐다. 성 작가는 “두 분의 이야기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지 들려준다”며 “두 분의 삶을 통해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해인 수녀는 추천의 글에서 “유난히 바다를 좋아하는 마리아나와 마가렛의 삶 자체가 하나의 푸른 바다다. 외롭고 상처받은 이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끌어안은 넓고 큰 가슴의 바다. 낯선 나라에서 반세기를 헌신하고도 겸손하게 숨어 있기 바라는 두 사람의 삶은 그들이 아침마다 환우들에게 타조 우유처럼 따뜻하고 순결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나리오와 희곡작가인 성 작가는 그리스 테살로니키 국제 영화제 시나리오상을 수상했다. 노래극 ‘산타이고 가는 길’의 대본을 쓰고 음악극 작곡했으며 ‘성기영 미사곡집’을 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봄꽃의 향연...작가 14명 ‘봄빛 소나타’

함평 잠월미술관 내달 11일까지

함평 잠월미술관이 올해 첫 전시로 4월 11일까지 ‘봄빛 소나타’전을 열며 새 봄을 맞이한다.

이번 전시는 봄을 상징하는 꽃들과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주변 풍경을 마치 연주하는 듯한 느낌으로 담은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한국화와 서양화를 중심으로 작가 14명이 참여해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촛불민심을 보여줬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참여작가로는 한국화 김경주·김광옥·김병근·명현철·박문수·박인주·백현호·송유미·이선복·임혜숙, 서양화 이승희·장문갑·조성숙 등이다.

이승희 작가가 출품한 ‘기다림’은 매화꽃잎을 강조한 작품이다. 만개한 꽃이 아닌 꽃망울과 이제 갓 피어난 2~3송이를 작품에 담아 어서 꽃들이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진다.

명현철 작가의 ‘봄날에’는 신록이 푸르른 모습을 표현했다. 동산을 덮은 푸른 풀밭은 땅 뿐 아니라 하늘까지 뻗어 올라가며 희망찬 세상을 기원한다.

그밖에 백현호 작가는 ‘봄바람 날때’, 임혜숙 작가는 ‘라오스의 봄빛 소나타’, 김광옥 작가는 ‘두모의 봄’을 출품한다. 문의 070-8872-672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임혜숙 작 ‘라오스의 봄빛 소나타’

한국문화재단 한복사진 공모전... 내달 10일까지 접수

문화재단과 한국문화재단이 제2회 한복사진 공모전 ‘좋은 날, 고운 날’을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4월10일까지로, ‘한복과 함께하는 좋은날’을 주제로 한복의 아름다움과 맵시를 표현한 사진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1인당 2작품까지 제출 가능하며 규격(50만 화소·10MB 이하 2400×3400 픽셀·확장자 JPG)에 맞는 사진이어야 한다. 홈페이지(문화재단단 www.chf.or.kr·문화재단 www.cha.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

자우편(royalculture2@chf.or.kr)으로 보내면 된다. 컴퓨터그래픽과 합성사진은 출품할 수 없다.

대상 1점(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상금 150만원), 최우수상 2점(문화재단장상·상금 각 100만원) 등 총 수상자 50명을 선정한다.

심사결과는 4월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수상작은 궁중문화축전 기간인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서 전시된다. 문의 070-4706-0903. /김용희기자 kimyh@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성과 집적

‘아시아 소수민족 의복 문화’ 책 두 권 펴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소수민족의 의복 문화를 다룬 연구보고서 두 권을 최근 출간했다.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소가 펴낸 책자로 문화전당 개관 이전부터 축적해 온 연구 성과를 결집한 것이다. 문화전당은 이 보고서

를 유관 기관과 도서관, 학술 단체 등에 배포하며 5월 초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 1권은 ‘태공 강 유역 소수민족의 의복 문화’, 2권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지역 소수민족의 의복 문화’를 담고 있다. 이기중 전남대 인류고고학과 교수, (사)아시아문화

연구팀이 등이 연구와 집필에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두 차례에 걸친 현지 조사와 사례 수집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탐구 결과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현지 조사는 태공강 유역과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지역의 11개 부족을 상대로 실시됐으며 다양한 도판 자료를 실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전당은 이번 출간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아시아문화 관련 출판물을 발간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기본대관기간: 7일(일주일 단위)
▶ 실 전시 벽면 길이: 약 46 M
▶ 개관시간: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구, 기동박물관 뒤 근남연 18)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은 입장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Hye Eun Lee
2017 Dinner Show